SM, 4년만에 최고 1060달러 폭등!

FOB Korea 1055-1065달러로 67달러 폭등 ··· 한국·타이완 트러블로

SM 가격은 7월9일 FOB Korea 톤당 1055-1065달러로 67달러 폭등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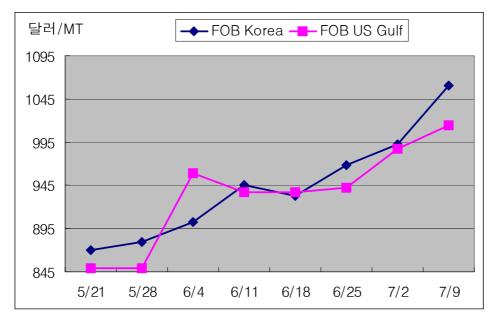
아시아 SM 시장은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과 벤젠가격 폭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국제적으로도 벤젠가격이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0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.

특히, 타이완 소재 Formosa 및 BASF 플랜트에 문제가 발생하고 한국 플랜트들도 노사분쟁으로 가동중단 우려가 제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.

SM 가격이 FOB Korea 톤당 1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근래에 없던 일로 4년만에 최고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7월9일에는 8월 하순 거래물량 2000톤이 FOB Korea 1060달러에 거래됐으며, 또 다른 2000톤은 CFR China at Sight 톤당 1065달러에 거래됐다.

SM 가격추이



한편, 미국의 SM 가격은 7월9일 FOB US Gulf 파운드당 45.00-47.00센트로 톤당 평균 1014달러를 형성해 27달러 상승했으며, 7월 계약가격은 49.00-52.00센트를 나타냈다.

<화학저널 2004/07/13>